



동신대 응급구조학과, 119청소년단 입단

동신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나주소방서가 운영하는 119청소년단에 입단해 예비 응급구조 인력으로서 책임감을 다졌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최근 개최된 한국119청소년단 입단식에 참석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소방안전 교육을 받으며 안전 대응 역량을 키웠다.

나주소방서는 학생들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기초 소방안전 교육 △수상안전사고 예방 교육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교육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문 지식과 실효성 높은 교육을 제공했다.

김세훈 응급구조학과장은 “이번 전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예비 응급구조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통해 맞춤형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전남도체육회-백제홍삼, 후원 협약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19일 전남도체육회관에서 백제홍삼㈜와 후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임직원과 백제홍삼㈜의 이광자 전무이사, 정귀섭 고문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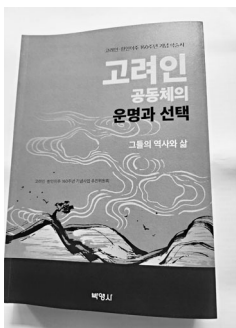
백제홍삼㈜는 앞으로 2년간 전남도체육회의 공식 음료 후원사로 참여하며, 자사 제품인 ‘삼대인 홍삼볼(245ml×24캔)’을 공급할 예정이다. 72박스 이상 구매시 동일 수량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자는 조건도 포함됐다.

전남도체육회는 이 제품을 각종 체육행사와 직장운동경기부, 시·군 체육회, 종목단체 대회 등에 활용해 체육인들의 체력 관리와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송진호 회장은 “전남 체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제홍삼㈜ 이광자 전무이사는 “전남 체육 발전에 보탬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건강과 스포츠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원 기자

고려인·한인이주사업회, 학술서 출간



고려인·한인이주 1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대표 임재완·김현동·기념사업회)가 지난 1년간 사업을 결산하고 학술서 ‘고려인 공동체의 운명과 선택: 그들의 역사와 삶’을 펴냈다. 기념사업회가 작년 8~10월 국내·외 고려인 연구자와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서울, 광주, 대구, 인천에서 학술포럼을 개최한 성과물을 정리·집대성한 것.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2월 국회에서 ‘고려인·한인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출범식을 거행하고 연말까지 국내와 러시아 연해주에서 각종 기념행사, 전시, 공연, 포럼을 진행했다. 4개 지역에서 개최한 포럼을 통해 고려인·한인이주의 역사적 의미와 그들이 전개한 사회문화 활동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이 학술서는 글로벌 디아스포라학을 체계화한 총론과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세부적으로 다룬 2개 단원으로 구성됐다.

임재완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당시 비참한 정치적·경제적 환경에서 처한 함경도 한인들이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개척하는 도전을 감행했는데 전세계 700만 재외한인 역사적·문화적·경제적 뿌리가 됐으며 평화와 번영의 정신적 모태가 됐다”며 “학술서가 관련 기관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책은 국내 각종 도서관, 대학, 연구소, 지자체 관련 부서에 비치될 전망이다. 최환준 기자

“AI활용 김치페어링 콘텐츠 구현…글로벌화 앞장”

김지현 광주여대 교수, 국제요리제과경연 단체전 ‘장관상’

문체부·한식진흥원이사장상 학생 8명 개인전 ‘금상’ 영예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식품영양학과와 영양식품학과(성인)가 지난 16~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 참가해 단체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한식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한국김치를 페어링 한 글로벌푸드’ 팀으로 출전해 성과를 거뒀다. 개인전에 출전한 식품영양학과 김설원(4년)·김민주(3년)·남예니·정연진·전수영(대학원), 영양식품학과(성인) 박은정·박희정·박영재(1년) 등 8명이 금상을 수상했다.

26회 한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는 한국음식관광박람회 기간 중 열린다. 한국음식 관광 자원화와 한식 세계화를 위해(사)한국음식관광협회가 주최·주관하며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노동부, 한식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후원하는 국내 최대의 음식박람회로 3000여명의 조리사와 학생들이 10개 부문 50여개 분야에서 경쟁을 펼쳤다.

김지현 교수는 “올해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김치페어링콘텐츠 구현 과정을 반복하며 음식제조와 플레이팅 완성도를 높이면서 시행착오를 줄였다”며 “광주·전남 향토음식이 글로벌음식 매카로써 자리매김 하도록 김치제조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새롭게 페어링 한 글로벌 음식을 제시한 결과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광주·전남 조리인과 식품관련학과 대학생 요리대회를



광주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영양식품학과 재학생들이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 출전, 문체부 장관상·한식진흥원 이사장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여대 제공

지도도를 맡아 2000여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한편 광주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2009년부터 17년 연속 광주김치를 주제

로 출품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등 30여개 상을 석권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현대삼호, 지역아동 캠프필드 관람 행사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 보육시설 아동들을 야구장에 초청했다.

HD현대삼호는 지난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2025 신한 SOL Bank KBO 리그’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시즌 6차전 경기에 지역 보육시설인 목포공생원 보육아동 14명과 인솔교사 3명 등 17명을 초청해 경기를 관람했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마

음껏 뛰놀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삼호는 회사 창립 이래 해마다 명절, 가정의 달, 추석 등이 되면 지역사회에 물품을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지난 1월 목포공생원을 비롯한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박지현 조선대 석사과정생, 학술대회 입상

조선대학교는 박지현 신소재공학과 석사과정 학생이 ‘대한금속·재료학회 춘계 학술대회’ 제1회 학생세션에서 ‘Best Top 20 Student of the Year 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지현 학생은 ‘EAF 형 수 모델을 활용한 저주 모사 시, 균일 혼합시간에 따른 교반 에너지 효율’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박지현 학생은 “학생세션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과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를 이어가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환준 기자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 전달식

이성우 위원에 현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가 지난 19일 이성우 법무보호위원에게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18호’ 현판을 전달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후원자의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

원을 위한 자원 확충을 위해 기업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성우 위원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동참하게 됐다”며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동부지부 황경주 지부장은 “후원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라며 “나눔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광주교육청, 제18회 세계인의 날 행사

광주시교육청은 20일 본청 로비에서 ‘제18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세계를 잇는 마음,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출근 맞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계인의 날’은 법무부에서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매년 5월 20일)이다.

이날 행사는 직원들이 세계 평화와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세계수도 퀴즈, 랜드마크 엽서 투

어, 세계 여러 나라 전통의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세계 속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길 바란다”며 “광주 학생들이 ‘함께 사는 세계’에 대한 감수성과 실천의식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과 국제 이해 교육을 위해 다양한 글로벌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환준 기자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 jndnnews@naver.com

